

한국 출신 세계적 여성지휘자들의 음성 공통점 규명

심준영* 정진용* 강주혁* 최영서* 조일영** 이지연** 김경배*** 정연만**** 조동욱*

충북도립대학교* 중원대학교** 서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ducho@cpu.ac.kr

Finding out what Voices have in Common of Maestra from Korea

Jun Young Shim* Jin Yong Jung* Joo Hyuk Kang* Young Seo Choi* Il Yeong Cho** Ji Yeon Lee**

Kyung Bae Kim*** Yeong Man Jeong**** Dong Uk Cho*

*Chungbuk Provincial Univ. **Jung Won Univ. ***Seowon Univ. ****GangneungWonju Univ.

요 약

우리나라도 여성지휘자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다. 그 동안 남성의 고유 영역이었던 지휘계에서 여성 지휘자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국출신 여성지휘자의 음성 공통점이 무엇인 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I. 서 론

우리나라도 이제 바야흐로 여성지휘자 즉, 마에스트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이 포디엄에 선 것은 지금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경희교수가 1989년 대전시립교향악단을 객원 지휘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강남심포니 상임지휘자인 여자경을 비롯하여 김봉미, 김은선, 장한나, 진솔, 김유원 등 쟁쟁한 여성지휘자들이 음악계를 장악하고 있다. 사실 지휘자의 역할은 악단에서 곡을 재창조해내서 자신의 곡으로 그것을 연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지휘자는 여러 연주자나 성악가들을 보듬어 음악을 만들어야 하는 관계로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사교성, 행정 감각, 정치력을 비롯한 수많은 외적 요소를 논외로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단원들을 지휘하며 통솔력과 리더십을 보여야 단원들이 믿고 따른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성의 고유 영역이었던 지휘 영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지휘자인 여자경, 김봉미, 김은선, 장한나, 진솔의 5명의 음성을 선정하여 이들의 음성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공통점과 의미를 규명해내고자 한다.

III. 실험 결과

아래 그림 1에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대상자 5인을 나타낸다. 상단 좌로부터 여자경, 김봉미, 김은선, 장한나, 진솔이다. 아울러 표 1에 이들 5인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1. 실험대상자 5인

표 1. 실험대상자 5인에 대한 실험 결과

	김봉미	김은선	장한나	진솔	여자경
평균음높이[Hz]	171.547	183.888	179.927	186.321	151.868
음높이 편차[Hz]	294.846	358.208	158.401	277.115	277.115
주파수변동률[%]	0.983	0.784	0.679	0.930	0.834
진폭변동률[dB]	0.808	1.166	1.029	1.052	0.849
NHR[%]	0.167	0.165	0.144	0.158	0.142
무성음 비율[%]	30.156	31.521	31.089	21.096	30.349

표 1과 같은 음성 분석 요소를 사용한 것은 음성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중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음 높이, 음 높이의 편차 그리고 정확한 발음과 공명성이기 때문이다.

III. 실험 결과 자료를 통한 음성공통점 추출

실험대상자 5인에 대해 음 높이, 음 높이의 편차, 신뢰도와 관련되어 있는 음성 분석 요소인 주파수변동률, 진폭 변동률과 NHR에 대한 실험 결과에 대한 여성 지휘자 5인의 음성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지휘자는 실험 대상자 모두 음 높이가 낮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성대 크기가 작은 관계로 남성과 달리 음 높이가 높다. 통상 200[Hz]대 이상에 해당한다. 특히 유재석의 ‘놀면 뭐하니’에 출연하여 대중적 인지도가 대단히 높은 여자경지휘자의 경우 평균 음 높이가 151.888[Hz]로 상당히 낮은 저음의 음성을 나타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 그 간의 자료[1]를 살펴보면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CEO, 더 큰 기업에서

연봉도 더 많이 받는다'는 내용을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소리는 사회적 지위를 암시한다. 중저음목소리와 CEO를 포함한 리더와 어떤 관계가 있을가에 대해 2013년 듀크대 메이유 교수팀은 목소리 음 높기와 CEO 성공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2]. 연구팀은 미국 792개 기업 CEO의 연설테이프를 구한 뒤 목소리와 해당 기업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목소리가 낮은 CEO일수록 규모가 큰 기업을 경영했고, 그에 따라 연봉도 높고 재직 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다른 실험 연구에서 사람들은 중저음 목소리를 가진 개인이 리더십도 출중할 것으로 평가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3]. 아울러 중저음이 능력, 설득력, 자신감, 신뢰도 등 긍정적인 속성과 연계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기존 연구자료[1]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목소리는 정치인들에게도 중요한 속성이다. 2012년 캐나다 맥마스터대 티그교수팀은 미국대통령의 목소리를 조작한 뒤 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중저음의 대통령이 성격도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했으며 더욱이 전시 상황을 가정한 실험에서 중저음의 정치인은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상의 내용과 여성 지휘자 5인의 음 높이를 연결시켜보면 이들의 여성치고는 대단히 낮은 저음의 음 높이를 통해 본인들이 지휘자로 있는 약단의 단원들에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어 믿고 따르게 하는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강세를 앞부분에 두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강세를 앞에 두고 말을 할 경우 지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말끝을 끌 경우는 친절하고 착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효과가 있다. 해방 후 대구 경북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가장 많이 진출했다. 대구 경북 음성은 말을 할 때 강세가 앞에 실려 있는 특징이 있다. 반면 말끝을 끄는 충청도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음성의 특징과 연계된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음성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주파수변동률, 진폭변동률, NHR의 수치가 좋다. 그 간 본 연구팀이 실험한 바에 의하면 주파수변동률, 진폭변동률과 NHR등의 수치가 좋은 방송사 앵커의 경우 시청률이 높게 형성된 실험 결과[4]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성의 전용 무대였던 지휘계에서 여풍당당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 여성지휘자들의 음성은 강한 리더십을 느끼게 하고 신뢰도가 높은 음성 특징으로 인해 단원들이 믿고 따르며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여겨진다.

넷째, 무성음의 비율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음성의 전달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통상적으로 무성음의 비율은 20~30[%]가 적절한 수치로 여겨지는 데 실험 대상자 5인 모두 이 수치를 만족하고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세계적 지휘자로 여겨지는 우리나라 여성 지휘자 5인에 대한 음성을 기반으로 이들의 음성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음성만을 기반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음성학적 측면에서만 이들의 음성을 분석해 보면 리더십이 있는 음성, 능력이 있는 지휘자 그리고 신뢰도가 있는 사람이란 느낌을 주는 음성을 구사하고 있다. 아울러 무성음의 비율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여 음성의 전달력을 극대화시키는 음성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음성만을 기반으로 어떤 집단의 특징을 규명할 순 없지만 각 집단마다 나름 고유

의 갖추어야 할 음성 특징은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휘자들이 갖추어야 할 음성 특징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차후 남성 지휘자들을 비롯하여 음성학적 관점에서 각 직업 집단의 음성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규명작업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 [1] https://dbr.donga.com/article/view/1303/article_no/6875
- [2] Mayew, W.J et al., 'Voice pitch and the labor market success of male chief executive officer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4, 243-248, 2013.
- [3] Klostad, C.A et al, 'Preference for leaders with masculine voices holds in the case of feminine leadership roles, *PLOS one*, 7-12, e51216, 2012.
- [4] Dong Uk Cho et al., "Identifying Voice Characteristics of Current Announcers Using Voice Analysis Technology," *Journal of KIPS*, Vol.42, No. 7, 2017.